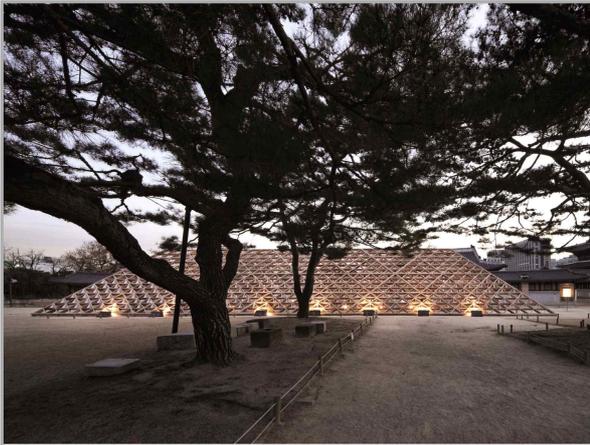


김백선 개인전

Kim Paik Sun



Kim Paik Sun
김백선展

2013. 2. 22 ~ 3. 17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전시명 : 김백선 개인전 Kim Paik Sun

일 시 : 2013년 2월 22일(금) - 3월 17일(일) 24일간

장 소 : 학고재 갤러리 전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사진 10점, 수묵화 3점, 영상 10편, 설치작품
3점 외

답 당

이예림 lee@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30222-20130317 김백선展]

전시 개요

학고재 갤러리는 2013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건축가, 디자이너, 아트디렉터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백선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일반적인 디자이너와는 다르게 여러 분야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김백선은 과거 자신이 진행했던 공간 및 문화 프로젝트를 되돌아보며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본 전시는 전통과 현대 사이의 문화적 소통의 가능성과 주거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 등 공간과 문화에 대한 가치를 되짚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간 진행해온 프로젝트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사진, 설치작품 등을 필두로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의 이력이 돋보이는 수묵화 또한 선보인다.

김백선은 건축설계, 디자인, 아트디렉팅을 망라하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시도를 결국 모두 하나라고 보고 일상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구상한다. 또한 공간의 가치를 자연을 모태로 하는 동양 미학 속 '사의성(寫意性, 사물의 외형 보다 그 안에 내재한 정신을 중시하는 것)'에 두고 근본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전시에 설치된 영상은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이 중 <화풍: 경복궁으로의 초대(2010)>, <목향-천년전주명품 '온'(2010)> 등은 전통의 가치가 단지 보존에 중점을 두고 현재와 동떨어져 머물 것이 아니라, 동시대인이 향유하고 소비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는 작가의 태도가 담겨있다.

전시 내용 작업 전반에 대한 이용백(작가)과 김백선의 인터뷰

일상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디자인

행하는 모든 작업에 ‘~답다’와 ‘행복’이라는 기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김백선은 어떻게 일련의 작업들이 일상에서의 행복지수를 가치 있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전통문화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은 그저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리고 향유하며 그로부터 위로 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친환경’, ‘동물복지’와 같은 표현에 친숙해진 지 오래다. 이것은 행복에 대해 가치를 두는 오늘날 우리네 모습이다. 판매되는 농산물에도 생산자와 생산 과정이 상세하게 표기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과 사물간의 가치 교감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동양적 사유의 공간

김백선은 학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고 수묵화, 사군자, 산수화, 화조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바라본 자연은 동양 미학에 근본을 둔 심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동양 회화에서 사군자는 사물을 사물자체로 보는 것을 넘어, 의인화를 통해 철학적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방식은 작가가 사물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김백선이 주로 쓰는 나무, 돌, 물 등의 자연적 소재는 그대로가 언어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은 ‘형상에 대한 무형상’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멈춰 있다’고 규정되곤 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연에는 기의 흐름, 자연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그 흐름 속에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은 언제나 진행 중이다. 작가가 생각하는 공간이란 존재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기의 표현이며,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심상적 사유를 통한 물성의 감성적 가치”에 대한 표현이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현대와의 접목

한국 전통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목가구를 예를 들어, 전통 목가구에는 사용자의 인문학적 소양이 반영되어 있다. 선비의 공간에 대한 해석과 함께 소목장의 숨씨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대표적인 한국의 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와 원형에 대한 보존 및 복원에만 치중하여 전통 형태가 복제된 목가구는 현대인의 삶의 공간에 부합되지 않은 오브제로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최근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진흥 사업 <천년전주명품 프로젝트 ‘온’> 등 전통문화를 단지 보존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21세기 우리 삶의 공간 속에 소통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 우리가 지켜온 전통의 가치를 향유하며 소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작가는 생각한다. 우리의 전통은 그저 지키고 보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리고 향유하며 그로부터 위로 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 구성

본관



김백선, 안개(설악산), 2012, Single Channel Video

안개

작가의 자연에 대한 사고를 보여주는 영상 작품

김백선은 자연에 기의 흐름이 있다고 믿는다. 자연은 물리적으로 그 흐름 속에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안개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 이처럼 그의 작업에서 공간이란, 존재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기의 표현이다. '형상에 대한 무형상'을 반영하여 공간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이기에 이번 전시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다.



김백선, 화풍: 경북궁으로의 초대, 2009, 경북궁, 서울

화풍: 경북궁으로의 초대 (완성 프로젝트 영상)

경복궁 수라간 터에 재현된 오늘날의 식문화공간

경복궁의 건축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구조와 외형은 전통 창호의 형태를 띤 목구조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경북궁 프로젝트는 전주의 자궁심에서 출발하였다. 유네스코는 전주를 '음식 창의도시'로 지정했다. 전주의 음식문화가 인류가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세계적 가치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전주는 한국적 스타일의 음식문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했고, 이러한 전주의 꿈에 <문화재청>, <디자인 하우스>와 <두오모> 등이 힘을 합쳤다. 우리의 음식문화가 자존적이면서도 세계 속에서 그 가치를 발하는 요즘, 전통적 가치들이 현대의 문화적 언어로 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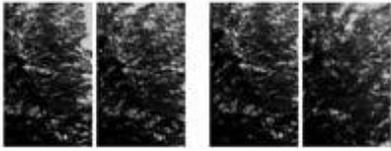


김백선, 서권기문자향 書卷氣 文字香 (천년전주명품 '은'), 2009, 코엑스, 서울

서권기문자향 書卷氣 文字香 (천년전주명품 '은') (완성 프로젝트 영상)

무형문화재 4인이 제작한 현대적 디자인

한옥이 일상이 된 전주에서는 자연스럽게 한옥에 걸 맞는 가구와 일상용품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김백선은 우리 가구, 한국적 일상용품에 대한 고민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풀어내보이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김백선이 디자인하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4인(악기장 고수환, 선자장 조충익, 소목장 조석진, 한지발장 유배근)이 제작에 참여하여 전주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심화된 공간의 특징을 살려 선인들의 문화와 어우러진 현대적 가치를 표현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닌 무형문화 가치를 보존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의 삶에 소통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신관
F1

김백선, 대나무(섬진강), 2012, Photography

대나무

흔들리는 대나무

사군자에서 대나무는 깨끗함의 상징이고, 이는 인간의 관념적 접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본 대나무는 늘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이번 전시에 작가는 관념에서 벗어난 비정형화된 형태와 단상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통해 보여준다.

B2



김백선, 집, 2013, 폐목재, 가변설치

집

폐목재가 만드는 공간의 언어

설치작품 <집>은 버려진 재료의 새로운 가치창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작품이다. 작품에 사용된 폐목재는 허물어진 한옥에서 떨어져 나온 소재이다. 본디 공간을 구성하던 재료가 생명을 다해 버려져 공간 구성품으로서의 쓰임이 없어진 것을 다시 전시장으로 불러들였다. 사라진 것을 새로운 형태로 재창출할 수 있다는 순환의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작가 약력

김백선 (1966년생)

-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2004-2010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교수
2005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관 세라믹하우스II 연출 감독
2007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자문위원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아트디렉터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관 세라믹하우스III 연출 감독
2007-2009 천년전주명품 '온', 아트디렉터
2008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아트디렉터
2008-2012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회장
2009-2010 문화재청 자문위원: 서울 5대궁 살리기 자문위원
2010 인천국제공항 자문위원
서울디자인재단 자문위원
2011 설화문화전 아트디렉터
2012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예술감독
현재 백선디자인 스튜디오 소장

개인전

- 1991 응 갤러리, 서울
1990 얼 갤러리, 서울
갤러리 도올, 서울

주요그룹전

- 2011 백선디자인 소품전,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
2010 화풍: 경복궁으로의 초대, 경복궁, 서울
묵향 - 천년전주명품 '온',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 서울
2007-2009 '온' 천년전주명품,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
2007 세계실내디자인대회 초대작가, 부산
디자이너초이스,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
2006-2008 한국건축가협회 초대전, 서울
1999 중앙미술대전 대상 작가 초대전, 호암아트홀, 서울
1998 한국현대미술 대상 작가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3 전환시대의 모색, 예술의전당, 서울
1992 김백선 · 송금화 2인전,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안성
한국현대회화, 호암아트홀 서울
1991 젊은모색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수상

2011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올해의 디자이너상
2010	코리아 골든 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협회장상
2009	코리아 골든 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진흥원장상 코리아 골든 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갈매건축상
2008	코리아 골든 스케일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아시아 태평양 공간디자이너협회 어워드, 싱가포르
2007	코리아 골든 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건설교통부장관상수상
2006	마루 디자인 어워드
2003, 07-10, 12	평가명인상
1989	중앙미술대상, 호암미술관, 서울

주요프로젝트

한남동 UN빌리지 빌라 설계, 서울
 문리버타운하우스 빌라단지 설계, 베이징
 청담동 품타워 설계, 서울
 중국 북경 전통주거단지 설계, 베이징
 분당 K씨 주택 설계, 분당
 대안공간 루프 설계, 서울
 고수련 한의원 설계, 서울
 염곡동 P씨 주택 설계, 서울
 당산 호텔 인테리어설계, 당산, 중국
 가평 L씨 주택 설계, 가평
 이태원 H씨 주택 설계, 서울
 뉴폴더 스튜디오 설계, 김포
 미술관 단지 프로젝트, 경기
 제 4회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여주관 세라믹하우스3 설계, 여주
 동양건설 화성 동탄 타운하우스 설계, 화성
 롯데건설 화성 동탄 타운하우스 UNIT 설계, 화성
 소요 클리닉 설계, 서울
 베이사이드 클럽하우스 설계, 서울
 용산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 UNIT설계, 서울
 청담동 T-LOUND 신축설계, 서울
 덴마크 주재 한국 대사관 설계, 헬레루프, 덴마크
 경동건설 해운대 우동 UNIT 설계, 부산
 패럴타워 인테리어 설계, 서울
 삼성건설 래미안 갤러리 설계, 서울
 하나은행 프라이빗 뱅크 설계, 서울
 롯데월드타워 커뮤니티공간 UNIT, 서울